

200여 년 걸친 판타지 멜로에 빠져보요~

KBS 2TV '흑기사' 오늘밤 첫 방

김래원·신세경·서지혜 등 연기호흡

'태양의 여자' 김인영 작가 집필

도깨비는 영겁의 세월을 논하더니, 이번에는 200여 년을 오가는 흑기사가 찾아왔다.

KBS 2TV가 '매드독' 후속으로 6일 밤 10시 첫방송하는 '흑기사'는 지독한 운명으로 얽힌 세 남녀의 200여 년에 걸친 판타지 멜로를 그린다. 김래원과 신세경이 주연을 맡았다.

제작진은 5일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던 매혹적인 이야기"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힘이 작용하여 행운과 징벌을 내리고 운명으로 엮인 연인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로운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래원이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 '문수호'를 연기한다.

부모를 잃은 후 가족처럼 지내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가 앞으로 큰 운이 따를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예언이 되어 문수호는 승승장구했지만 웬지 큰 대가를 치를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났던 첫사랑이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다.

제작진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위험한 운명에 맞서는 문수호의 순애보가 펼쳐진다"고 전했다.

신세경은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늘 미소를 짓고 살아야 하는 여행사 직원 '정해라'를 연기한다. 어린 시절은 유복하게 자랐지만,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절망의 순간, 과거 사문양장점에서 맞았던



김래원(오른쪽)과 신세경

자주색 코트를 떠올렸다. 집안이 말하는 바람에 찾지 못했던 그 코트를 찾아온 뒤 정해라에게는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신을 '흑기사'라고 말하는 남자도 나타난다.

서지혜가 사문양장점의 디자이너 '사문'을 맡았다. 아름답고 도도한 그에게는 한가지 큰 비밀이 있다. 늑지도

죽지도 않고 200여 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문은 200여 년 전 지은 죄로 불로불사의 벌을 받고 있다.

사문처럼 불로불사의 저주를 받고 250년째 살고 있는 '장백희'도 등장한다. 장미희가 연기한다.

'태양의 여자' '적도의 남자' '착하지 않은 여자들' 등을 히트시킨 김인영 작가가 대본을 쓴다. /연합뉴스

가수 이용, 자작곡 '미안해 당신' 발표

12집 발표 이후 4년만에 신곡

19080년대 '잊혀진 계절'로 사랑받은 가수 이용(60)이 약 4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

5일 이용의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직접 작사·작곡한 신곡 '미안해 당신'을 타이틀곡으로 한 싱글 음반을 이날 음원사이트에 공개했다. 신보는 2014년 1월 발표한 12집 '눈물로 쓴 이야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정적인 멜로디에 록 비트가 가미된 '미안해 당신'은 한 남자가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바치는 고해성사 같은 노랫말이 담겨 몽클하다.

피아노와 반주와 코러스로 시작되는 도입부에 이어 고백하듯 노래한 이용의 진지한 창법이 인상적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 '나는 마지막 눈 감는 날에/ 당신 귀에 대고 이 말 하리라/ 미안해 당신, 고마워 당신, 사랑해 당신/ 이 말뿐이오'란 구절이 21세기 버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연상시킨다.

이 곡의 간주에 나오는 일렉트릭 기타 솔로도 그가 직접 연주했다. 평생 피아노와 통기타만 연주한 그가 일렉트릭 기타 연주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다.

이용은 새 음반을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한 경인방송 iFM '행복한 10시 이용입니다'를 중단하고 곡 작업에만 매달렸다.

소속사 측은 "이용 씨가 '미안해 당신' 발표와 함께 가수 활동에만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곡을 돌며 라디오와 TV에 출연해 신곡을 알리고 공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이 노래가 2003년 발표해 사랑받은 '후회'만큼 히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용은 1981년 대학생 가요제인 '국풍 81'에서 '바람이여'로 데뷔해 1982년 1집 타이틀곡 '잊혀진 계절'로 약 85만장의 판매를 기록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절의 마지막 밤을'로 시작하는 '잊혀진 계절'은 지금도 10월 31일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또 다른 대표곡으로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이별 뒤의 이야기', '잠들지 않는 시간', '첫사랑이여' 등이 있다.

그의 아들 이용 씨도 성악가(테너)로 음악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용의 9집 녹음에 참여해 주목받은 이용 씨는 지난해 웨스트버지니아주 헌팅턴 소재의 마셜대학교 음대 성악과 교수로 임용됐다. /연합뉴스



자이언티·이문세의 겨울 감성 통했다

듀엣곡 '눈' 8개 차트 올킬

싱어송라이터 자이언티가 이문세와 듀엣한 싱글 '눈'으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지난 4일 오후 6시 공개된 '눈'은 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멜론, 지니, 올레뮤지,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 몽키3뮤지 등 8개 차트 정상을 석권했다.

나일의 신곡 '기억의 빈자리'를 제친 발라드 '눈'은 자이

언티가 데뷔 6년 만에 처음 선보인 겨울 싱글로 이문세와 세대를 넘은 협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눈'은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공감할 노래"라고 설명했다.

이 곡의 성공으로 자이언티는 음원 강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보여줬다. 그는 '양화대교', '꺼내주세요', '노래' 등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 정상을 올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10 MBC네트워크특선 이름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재)	50 투깝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UHD 한식(재)	50 매드독(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로봇이 아니야 스페셜 영상 05 돈꽃(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인 50 건강혁명			55 닥터 365
2	10 미래기획 2030 -미래 환경의 열쇠! 자원 순환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5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뉴스브리핑
3	00 도전! K-스타트업 2017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5 양코르 MBC 스페셜 (천개의 얼굴, 화장 글로벌 버전)	
4	00 4시 뉴스집중		05 로봇이 아니야 미리보기 스페셜	00 창사특집 UHD다큐 나를 향한 빅 퀘스천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재) 35 UHD 한식(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첼리고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30 전생애 웬수들(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탐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아리랴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재)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35 로봇이 아니야 스페셜 영상 40 화려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미래기획 2030		55 로봇이 아니야 스페셜 영상	
10	30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이판사판
11	00 문화의 향기 5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김성민의 영수증(재)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2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아시아 시장기행 -인도 푸시카르 낙타시장)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똑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레이디디그 09:30 플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갈치 애호박피개와 시금치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사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한글이 야호 2(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노인 정신건강 프로젝트 -어머니, 행복하세요?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하쿠나 마티타 케냐 3부 섬마을 다이어리) 21:30 한국기행 (마음따라 산골마을로 3부 무릉도원을 찾고 있나요) 21:50 EBS 다크프라임 (극한의 땅 1부 다나킬의 소금 카라반) 22:45 극한직업 (대물양시 참돔과 철갑상어)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0월 19일 丁卯)

子	48년생 고생한 만큼에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60년생 실리 못지않게 관계도 중요한 법이다. 72년생 인과응보에 의한 원리가 순리인 법이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느니라. 84년생 이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09, 88	午	42년생 일목요연하게 수리하라. 54년생 꼭 닦게 다루는 것이 낫다. 66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만하지 않는다. 78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니라. 90년생 반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 부려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62, 25
丑	49년생 겸비하다면 대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61년생 발전적인 총동 양상을 띠고 있으니 번거로운은 김수하자. 73년생 머지않아서 곧 표면으로 드러나리라. 85년생 금전상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74, 32	未	43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55년생 바벨이 있다. 67년생 실용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만 생산성을 도모할 것이다. 79년생 방송한다면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다. 91년생 두루 살펴보는 것이 용이리라. 행운의 숫자 : 76, 61
寅	50년생 관계 인식에 있어서 유연함이 절실하다. 62년생 전체적인 대안이 되어 줄만한 확실한 해결책이 생길 것이다. 74년생 가닥이 잡히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86년생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7, 22	申	44년생 건너뛴다는 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으니 근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일이다. 56년생 평생사에 안전 의식을 잊지 말아야 면액할 것이다. 68년생 현안이 쉽게 처리되는 장면이다. 80년생 정성을 다 하라. 행운의 숫자 : 02, 62
卯	51년생 아차하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세밀하게 조절해야 할 입장이니라. 63년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느니라. 75년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 87년생 형세가 바뀌면서 무의미해진다. 행운의 숫자 : 15, 67	酉	45년생 형식은 의미가 없으니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몹시 애를 먹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겠다. 69년생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으니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81년생 가장 순위는 방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1, 11
辰	52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64년생 실효적인 조치들이 지속된다면 성사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76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다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88년생 한강에 돌 던지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25, 60	戌	46년생 견물생심이니 자제하지 않는다면 소비로 이어진다. 58년생 속단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70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채비를 하라. 82년생 응응의 묘리를 살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73, 86
巳	53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처세하기에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65년생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77년생 전체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마자. 89년생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고민이 해소된다. 행운의 숫자 : 46, 48	亥	47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만 유지된다. 59년생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71년생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리라. 83년생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여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69, 5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